

# 일본 상차림에서 수저의 문화학\*

— 한·일 비교문화론을 위한 시론 —

도 기 흥\*\*

(e-mail : miyako@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가마쿠라(鎌倉)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
| 2. 나라(奈良)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 5.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
| 3. 헤이안(平安)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 6. 나가기                  |

キーワード : 匙(Spoon), 箸(Chopsticks), 한국의 상차림 문화(Culture of Korean Table Settings), 일본의 상차림 문화(Culture of Japanese Table Settings), 한·일 비교문화론(comparative culture of Korea and Japan)

##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의 식사 장면에서 숟가락의 유무, 젓가락의 방향,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는지 상에 놓은 채 먹는지 등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일본학을 비롯하여 식문화학, 비교문화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된 선행 연구는 중복을 피하고자 줄고<sup>1)</sup>로 대신하기로 하고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인 한국의 상차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사하는 사람의 우측 앞에 세로로 배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저의 위치와 방향이 끊임없이 변화”<sup>2)</sup>하면서 오늘날의 가장 일반적인 배치 형태인 “우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9877).

\*\* 한밭대학교, 강사, 일고전문학

1) 줄고(2014) 「한국 상차림에서 수저의 배치를 둘러싸고-한일비교문화론을 위한 시론」 『일본어문학』 63호, pp.320-321.

측 세로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의 전면 중앙에 젓가락만을 가로로 놓는데 그 이유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일본의 “젓가락 문화론”이다.

民衆のあいだまで匙が浸透した形跡はなさそうである。貴族社会の崩壊とともに匙は忘れ去られてしまい、明治時代になって、鍋物の流行とともに散蓮華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sup>3)</sup>

상기 인용문은 일본에서 “순가락의 사용이 귀족사회(貴族社会=헤이안시대 : 논자 주)가 붕괴되며 망각되었다가 메이지(明治)시대에 지리렌게(散蓮華=도기 스푼 : 논자 주)가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젓가락 문화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한국의 논문에도 인용되는 빈도가 높은 설인데<sup>4)</sup> 두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밑줄 부분과 같이 순가락이 “민중 사이에 까지 침투한 흔적이 없는 듯하다”고 하여 ‘젓가락 문화’라 할 수 있는지. 에도(江戸)시대의 초닌(町人)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본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룹은 헤이안시대의 경우 귀족이었고 가마쿠라시대와 무로마치시대는 무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민중의 사용 여부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밑줄에서 “귀족사회의 붕괴와 함께 순가락은 망각되어 버렸고”라고 했으나 가마쿠라시대 이후에도 순가락 사용과 관련한 자료<sup>5)</sup>들을 볼 수 있다.

상기 통설은 일본에서 식문화 관련서가 많이 나기 시작한 1980년대에 형성된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 가마쿠라시대까지의 문헌, 의례서, 요리서, 미술 자료 등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この時代(가마쿠라시대 : 논자 주)には、平安時代の上流階級で見られた箸と匙を

2) 전계서 주1의 p.322.

3) 石毛直道(1983) 『食事の文明論』中央公論社, p.125-126. 이하 밑줄과 원으로 된 숫자는 논자의 것임을 밝혀둠.

4) 대표적으로 이성우((1988) 『韓国食品文化史』 教文社, pp.286-287)와 주영하((2011) 『음식인문학』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342)을 들 수 있다.

5) 向井由紀子、橋本慶子((2001) 『箸』法政大学出版局)는 조동종 예혜지(永平寺)에서 오늘날에도 순가락이 사용되고 있고(pp.200-202), 『겐조산조예(玄奘三藏繪)』에도 순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p.271-272).

用いる習慣はなくなり、銘々膳が普及し各自の膳には箸のみが配されている。①食品は食べやすく調理されているので、箸だけで口に運ぶことができる。箸の「②きりはなす」、「つまむ」、「はさむ」、「③はさみきる」、「すくいあげる」、「まく」、「④ひきはなす」などの機能は、匙の機能にくらべて多様性、即応性のある点から、自然に箸のみ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と思われる<sup>6)</sup>。

상기 인용문에서 보듯이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된 시기가 무로마치시대로 수정되었고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로 ①“식품은 먹기 쉽게 조리되어 있어서 젓가락만으로 입으로 옮길 수 있다”란 점을 들고 있다. 숟가락에 비해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하며 ②“따로따로 자른다”, ③“자른다”, ④“갈라 놓는다”는 젓가락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데 “먹기 쉽게 조리”된 음식을 젓가락으로 ②, ③, ④와 같은 동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상기와 같은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통설은 아직도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까지 알려졌던 기록이나 자료를 토대로 형성된 일본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젓가락 문화’란 통설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일본의 상차림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의 배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일본 문화의 변화 양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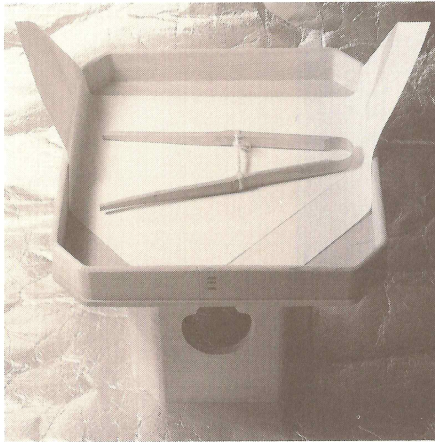
## 2. 나라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일본의 젓가락 기원설의 하나로 인용 자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나무를 굽혀 만든 편셋 형태의 젓가락을 들 수 있다. 텐노(天皇)가 즉위한 후 처음으로 조상 및 천신지기에겐 햇곡식을 바치고 이것을 먹는 의식인 다이쇼사이(大嘗祭)에서 신에게 바치는 음식물과 함께 놓였다고 하는데 “그릇 속의 음식을 집어 입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물건”<sup>7)</sup>이란 평가와 “신에게 바치는 식 사용, 요리를 나누는 용도로 사용”<sup>8)</sup>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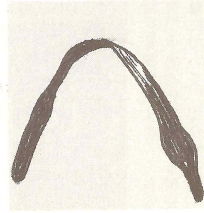
6) 전계서 주 5, p.52.

7) 전계서 주 3, p.124.

竹折箸  
(複製品)



島田遺跡出土のピンセット  
状の箸



자료 1 : 핀셋형 젓가락의 예<sup>9)</sup>

상기 인용 자료 1의 왼쪽은 복제품이고 오른쪽은 시마네(島根)현의 시마다(島田)유적에서 출토된 핀셋형 젓가락으로 식사에 사용하던 젓가락이었던지는 확실하지 않다.

순가락의 형태로 보이는 사료로는 “기원전 3세기 야요이(弥生)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시즈오카(静岡)의 토로(登呂)유적과 나라의 가라코(唐古)유적에서 출토된 나무 순가락”이라고 한다<sup>10)</sup>.

상기와 같은 순가락과 젓가락에 대한 사료는 있으나 중국의 「기시와진덴(魏志倭人伝)」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일본은 손으로 먹는 수식(手食)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食飲用籩豆、手食。(食飲には籩豆を用いて手食する。)<sup>11)</sup>

상기와 같이 손으로 식사를 하던 일본에 순가락과 젓가락이 전래된 시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고지키(古事記)』에 젓가락과 관련한 전설이 실려 있고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 등의 문헌에 젓가락을 뜻

8) 전개서 주 5, pp.27-28.

9) 사진은 一色八郎(1998) 『箸の文化史』 御茶の水書房, p.47에서 재인용.

10) 전개서 주 5의 pp.21-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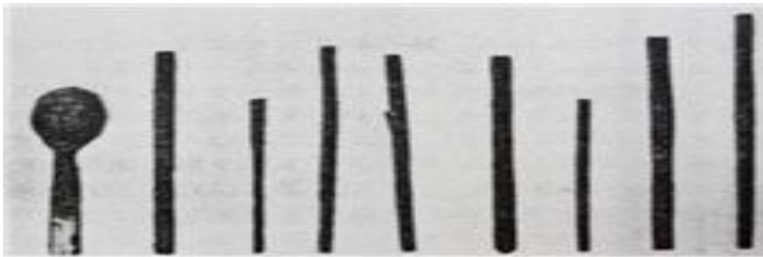
11) 본문 인용은 「魏志倭人伝」 (<https://ja.wikipedia.org>)에 의함.

하는 한자인 ‘저(箸)’의 용례를 볼 수 있다고 한다<sup>12)</sup>.

한편 일본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전파된 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日本で初めて新しい箸食制度を宮廷の供宴儀式で、採用したのは聖徳太子であるとされている。  
 これは、推古天皇十五(607)年、小野妹子を中国(隋)に派遣し(遣隋使)、一行は箸と匙をセットにした食事作法によって、盛んな歓待を受け、翌年、妹子は隋使ら十二名と帰国した。  
 このとき、日本では食事はまだ手食方法であり、急いで妹子らが受けた中国の食事作法をまねて、宮中で初めて正式な箸食作法による歓迎の宴を催すことになる。<sup>13)</sup>

“일본에서 저식제도를 궁정 연회에 최초로 채용한 것은 쇼토쿠(聖徳)태자이며 수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오노노이모코(小野妹子)가 수나라 사신들과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 환영연에서 젓가락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요지인데 상기 설을 따른다면 일본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사용된 연한은 오노노이모코가 수나라 사신과 귀국한 608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설을 뒷받침할만한 문헌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고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소개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다.



자료 2 : 후지와라궁 유적에서 출토된 숟가락과 젓가락<sup>14)</sup>

식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숟가락과 젓가락의 형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나라시대의 후지와라(藤原)궁 유적에서 출토된 상기 인용 자료 2를 들 수 있는데 형태가 오늘날의 것과 매우 흡사하다. “숟가락의 재질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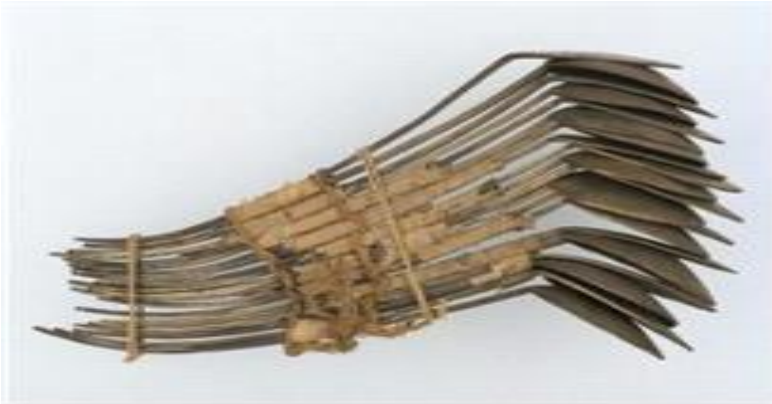
12) 젓가락만이 언급되어 있어 할애. 자세한 것은 전개서 주 9의 p.53 참조.

13) 전개서 주 9의 p.54.

14) 사진은 전개서 주 9의 p.55에서 재인용.

백나무이고 길이 약 16cm이며 당시 궁전의 건축에 편백나무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로 만든 것이 아닐까”<sup>15)</sup>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쇼소인(正倉院) 보물 창고에는 자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숟가락 묶음이 보관되어 있다.



자료 3 : 쇼소인 보물 창고에 소장중인 숟가락<sup>16)</sup>

쇼소인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숟가락은 청동제로 8세기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

따라서 서기 711년에 소실된 후지와라궁의 자료 2와 8세기 당시 모습 그대로인 자료 3의 연대를 감안하면 와타나베미노루(渡辺実)씨가 “숟가락이 젓가락과 함께 상에 차려져 국물 외에 주로 밥을 떠먹는데 사용되었으며 나라시대부터 사용되었다”<sup>17)</sup>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숟가락 사용 연한을 8세기 나라시대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 3. 헤이안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헤이안시대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문헌으로는 『마쿠라노소시(枕草子)』가 있다고 한다<sup>18)</sup>.

15) 전개서 주 5의 p.22.

16) 사진은 正倉院(<http://shosoin.kunaicho.go.jp/>)에서 인용.

17) 渡辺実(1973) 『日本食生活史』 吉川弘文館, p.102.

物のしろ、障子などへだてて聞くに、御物まるるほどにや、箸、匙などとりまぜて鳴りたる、をかし。ひさげの柄の倒れ伏すも、耳こそとまれ。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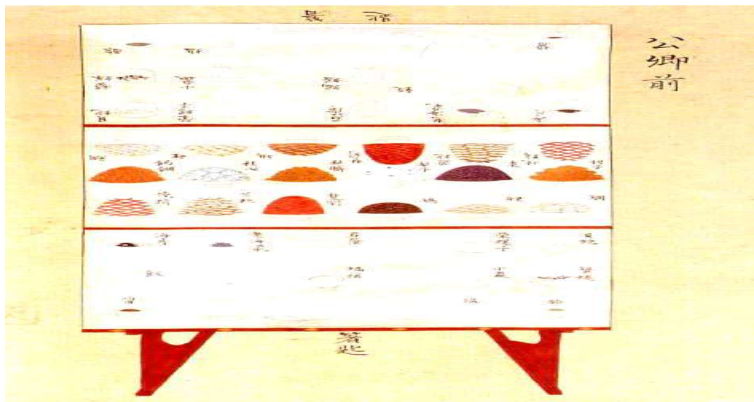
‘御物まるるほどにや’라는 표현으로 봐서 식사 장면으로 보이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식사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료로는 「고지루이엔(古事類苑)」의 세시부에 실린 『토카노세치에(踏歌節会)』의 기사를 들 수 있다.

置<sub>レ</sub>箸不<sub>レ</sub>置<sub>レ</sub>匙、20)

간지(寛治)5년(1091) 1월 16일에 거행된 토카노세치에를 다룬 기사인데 젓가락과 숟가락을 뜻하는 ‘저(箸)’와 ‘시(匙)’가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표기뿐만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을 그려 놓은 예시도가 포함된 것이 선행연구에서 흔히 언급되는 『루이쥬자츠요쇼(類聚雑要抄)』이다. 인용 자료 4의 『루이쥬자츠요쇼』는 헤이안시대 말기(약 1146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헤이안시대 궁궐이나 대신의 저택에서 거행된 대규모 연회인 다이쿄(大饗)의 상차림 예시도가 실려 있다.



자료 4 : 『루이쥬자츠요쇼』의 상차림 예시도21)

18) 宮崎正勝(2009) 『知っておきたい「食」の日本史』 角川文庫, p.40.

19) 본문 인용은 松尾聰・永井和子 校注(2002) 「心にくきもの」 『枕草子』(小学館, p.329) 에 의함.

20) 본문 인용은 「古事類苑」全文データベース(<http://ys.nichibun.ca.jp/kojiruien>)에 의함.

21) 사진은 「군쇼루이쥬(群書類従)」 364(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에 의함.

상기 인용 자료 4는 구계(公卿)가 서로 마주 보고 앉는 상차림인데 식탁의 상하 중앙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뜻하는 ‘저시(箸匙)’라 쓰여 있다. 또한 그 위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직접 그려 놓았는데 식사하는 사람의 전면 중앙에 가로로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루이쥬자츠요쇼』에는 이외에도 신노(親王) 등이 앉는 상석과 주인의 상차림 등에도 젓가락과 숟가락을 그려 놓은 예시도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할애하도록 하겠다.

#### 4. 가마쿠라시대의 숟가락과 젓가락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마쿠라시대는 미나모토노요리토모(源頼朝)가 가마쿠라에 바쿠후(幕府)를 설치한 무사시대이다. 이후 무로마치 바쿠후를 거쳐 에도 바쿠후까지 약 800여년간 무사가 정권을 담당하는 무사시대가 이어지며 헤이안의 귀족사회와는 다른 문화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다. 상차림도 예외가 아니어서 혼젠(本膳)요리, 카이세키(懷石)요리 등이 생겨났다. 그렇다고 해서 전술한 이시게씨의 지적처럼 “귀족사회의 붕괴와 함께 숟가락은 망각되어 버렸고”라고 할 수 있을까?

客首揖。

主人以下次第立<sub>レ</sub>匕箸<sub>一</sub> 先立<sub>レ</sub>匕。次立<sub>レ</sub>箸。

자료 5 : 『다이쿄 시다이(大饗次第)』<sup>22)</sup>

인용 자료 5는 가테(嘉禎)2년(1236) 6월 9일 츠치미카도(土御門) 사다미치(定通)의 우대신 임명시 거행된 다이쿄의 순서를 기록한 『다이쿄 시다이』의 산콘(三獻) 부분이다. 숟가락을 의미하는 ‘비(匕)’와 ‘저(箸)’가 적혀 있는데 이와 같은 ‘비(匕)’와 ‘저(箸)’는 켄초(建長)6년(1254) 12월 25일 거행된 사이온지 킨모토(西園寺公基)의 내대신 다이쿄<sup>23)</sup>에서도 볼 수 있어 무사정권 하에서도 귀족들의 다이쿄 상차림에서는 숟가락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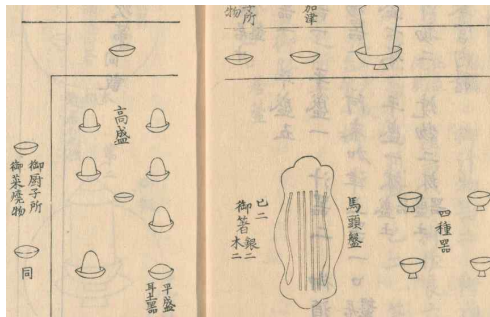
22) 본문 인용은 「신코군쇼루이쥬(新校群書類従)」 358(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에 의함.

23) 「신코군쇼루이쥬」 360(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 참조.

상기와 같은 숟가락과 젓가락에 관한 기록은 가마쿠라시대 말기의 요리서인 『츄지루이키(厨事類記)』와 『세조쿠리츠요슈(世俗立要集)』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6 : (좌) 『츄지루이키』 24)



(우) 『세조쿠리츠요슈』 25)

인용 자료 6의 왼쪽 사진은 1295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츄지루이키』에 실린 그림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뜻하는 ‘시(匙)’와 ‘저(箸)’를 우측 상단에 써놓았을 뿐만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까지도 그려 놓았다. 오른쪽 사진의 『세조쿠리츠요슈』에는 중앙 하단부에 ‘시(匙)’가 아닌 ‘비(匕)’로 적어 놓았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사하는 사람의 전면 중앙에 가로로 배치’했던 『루이쥬자츠요쇼』와 달리 『세조쿠리츠요슈』의 예시도를 보면 식탁의 중앙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로로 놓여 있다는 점이다. 군쇼루이쥬에는 “帝王昼御膳圖”라는 설명이 있어 텐노의 상차림으로 보이는데 귀족의 상차림과 달리 세로로 배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용례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한편 인용 자료 5에서 6까지가 귀족들과 관련이 있다면 후술할 자료들은 귀족과는 신분이 다른 승려들의 식사와 관련한 것들이다.

- ①遐尋-西天竺仏儀、如来及如来弟子、右手搏飯而食、未用匙筋。仏子須知矣。
- ②諸天子及轉輪聖王、諸国王等、亦用手搏飯而食。当知是尊貴之法也。
- ③西天竺、病比丘用匙、其余皆用手矣。筋未聞名未見形。筋者、偏震

24) 사진 인용은 「군쇼루이쥬」 448(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에 의함.

25) 사진 인용은 「군쇼루이쥬」 449(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에 의함.

且以來、諸国見用而已。今用之、④順土風方俗矣。⑤既為一仏祖之児孫、雖心順一仏儀而用手以飯、其儀久廢、無一師溫故。所以暫用一匙筋、兼用一鎖子矣。把鉢放鉢、兼拈一匙筋、勿教作聲。〈一八 ご飯の頂き方〉<sup>26)</sup>

상기 인용문은 1246년에 도겐(道元)이 저술했다고 하는 『후슈쿠한포(赴粥飯法)』에 실린 ‘식사법’의 일부인데 숟가락을 사용하는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선 정신을 설파하며 식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27)</sup>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젓가락이 식사의 주역으로 바뀌기 시작”<sup>28)</sup>한 송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도겐의 설이란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에 따르면 “여래와 여래의 제자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②에 따르면 “모든 천자와 제왕도 또한 손으로 밥을 멩쳐 먹는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기시와진덴」에서 일본인은 손으로 먹는다고 되어 있던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7 : 『텐구조시(天狗草子)』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장면<sup>29)</sup>

向井由紀子、橋本慶子(2001)는 상기 인용 자료 7의 『텐구조시』의 식사 장

26) 본문 인용은 道元(著) 中村璋八・石川力山・中村信幸訳・(2004) (『典座教訓・赴粥飯法』 講談社, pp.201-202)에 의함.

27) 江原絢子・石川尚子・東四柳祥子(2009) 『日本食物史』 吉川弘文館, p.86.

28) 張競(1997) 『中華料理の文化史』 ちくま新書, p.177.

29) 사진은 전개서 주 5의 p.280에서 재인용함.

면을 가리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밥을 먹는 승려들의 예의 없음을 『텐구조시』는 나타내고 있다”<sup>30)</sup>고 했는데 ①과 ②의 설을 따른다면 인용 자료 7의 『텐구조시』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승려들의 식사법이 도젠의 주장에 합치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에 대해서는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에서는 병든 승려만이 숟가락을 사용하며 그 외에는 모두 손을 사용한다. 젓가락은 이름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본 적이 없다. 젓가락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젓가락만을 언급하고 있어 도젠이 유학한 기간(1223년~1228년) 이전에 중국의 남송에서는 벌써 숟가락이 도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④에 따르면 “일본의 관습에 따른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지만 그 예법이 오랜 동안에 알 수 없게 되어 물어 볼만한 스승도 없어 잠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쿤스(鑊子)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도젠이 개종한 조동종의 예혜지(永平寺)에서는 오늘날에도 공양시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한다.



자료 8 : 예혜지의 점심 공양<sup>31)</sup>

상기 인용 자료 8은 예혜지의 점심 공양 사진인데 밥그릇에는 숟가락이 국그릇에는 젓가락이 각각 놓여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숟가락을 귀족들의 전유물로 파악했지만 승려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 인용 자료는 승려가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식사를 하고

30) 전개서 주 5의 p.293.

31) 사진 인용은 奥井海生堂(<http://www.konbu.jp/culture/konjyaku/syuzai2.shtml>)에 의함.

있는 사람의 신분은 차치하더라도 에마키를 그린 사람의 관점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9 : 『겐조산조에』의 식사 장면<sup>32)</sup>

상기 인용 자료 9는 중국 당나라의 승려 현장(삼장법사)의 일생을 그린 12권짜리 에마키인 『겐조산조에』로 가마쿠라시대 후기에 성립했다고 하는데 국그릇으로 보이는 그릇을 왼손으로 들고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숟가락을 그려 넣은 이유에 대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습관을 견문하여 나타낸 것”<sup>33)</sup>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술한 도겐의 코멘트에 비춰 보면 병자도 아닌 현장이 숟가락을 사용할 리가 없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인도에서 조차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에서도 도겐이 유학하기 이전에 젓가락이 식사의 주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던 일본의 습관에 따라 그려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귀족 이외에도 숟가락을 사용한 용례를 중요시하는 본고 입장에서는 후자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가마쿠라시대의 숟가락 사용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무사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마쿠라시대의 자료에서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에 대한 도겐의 설과 『겐조산조에』의 식사 장면은 일본의 “숟가락 문화”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2) 사진 인용은 小松茂美 編((1982) 『続日本絵巻大成』 中央公論社, p.15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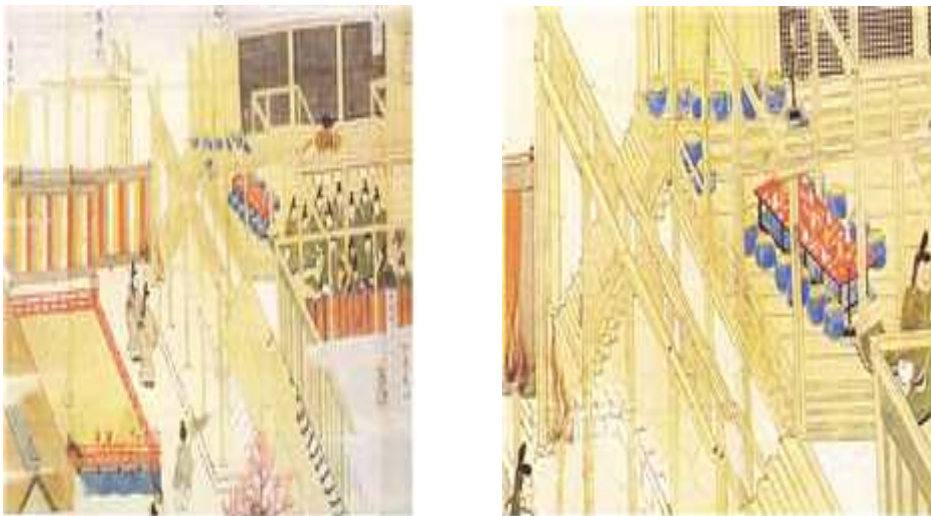
33) 전개서 주 5의 p.292.

## 5.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이 가마쿠라시대까지의 숟가락 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젓가락 문화론’에 대한 재검토를 해 왔는데 헤이안시대부터 가마쿠라시대까지 최소한 귀족들과 승려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트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했을까? 바로 무사들의 식습관이 문화의 주류로 진입 하면서 특히 젓가락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밥을 담는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보인다. 가마쿠라시대의 에마키 등에 그려진 식사 장면을 모아 보면 밥그릇과 밥을 담는 모양의 변화가 제일 눈에 띈다.

인용 자료 10은 헤이안시대 후기에 성립했다고 하는 『넨츄교지에마키(年中行事繪卷)』의 연회 장면이다. 우측 사진은 식탁 부분을 확대한 것인데 밥을 이른바 다카모리(高盛)로 담아 놓았음을 볼 수 있다.



자료 10 : 『넨츄교지에마키』의 식탁<sup>34)</sup>

이러한 다카모리는 헤이안시대 후기에서 가마쿠라시대 초기 무렵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마이노 소시(病草子)』의 식사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4) 사진은 小松茂美 編(1977) 『年中行事繪卷』 中央公論社, p.28에서 재인용.



자료 11 : 『야마이노 소시』의 식사 장면<sup>35)</sup>

상기 인용 자료 11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지키(折敷)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꽂아 놓은 밥그릇이 있는데 그 높이가 예사롭지가 않다.

또한 12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곤고슈고쇼에마키(華嚴五十五所繪卷)』의 식사 장면을 보면 손으로 들고 먹기 힘들 정도의 다카모리로 된 밥그릇이 그려져 있다.



자료 12 : 『게곤고슈고쇼에마키』의 식사 장면<sup>36)</sup>

그런데 1299년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잇펜쇼닌에덴(一遍上人繪伝)』의 식사 장면을 보면 밥을 담은 모양이 이전 자료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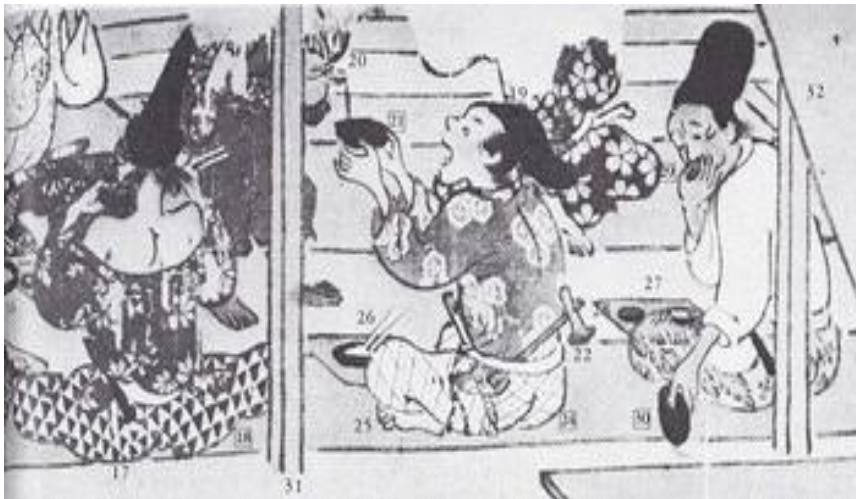
35) 사진은 小松茂美 編((1978) 『病草紙』 中央公論社, p.93에서 재인용.

36) 사진은 小松茂美 編((1978) 『華嚴五十五所繪卷』 中央公論社, p.93에서 재인용.



자료 13 : 『잇펜쇼년에텐』의 식사 장면<sup>37)</sup>

상기와 같은 식사 장면은 1309년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인용 자료 14의 『가스가콘겐에마키(春日権現絵巻)』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전면에 등을 보이고 있는 세 남자가 있는데 가운데 남자의 밥그릇의 크기를 보면 이전 자료의 것들 보다 작아 보인다. 이렇게 작아진 그릇에 다카모리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밥그릇을 왼손에 들고서 먹는 좌측의 남자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자료 14 : 『가스가콘겐에마키』의 식사 장면<sup>38)</sup>

37) 사진은 小松茂美 編((1978) 『一遍上人絵伝』 中央公論社, p.93에서 재인용.

38) 사진은 <http://mahoroba.lib.nara-wu.ac.jp/y04/fram1.html>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헤이안시대와 가마쿠라시대를 비교해 보면 밥그릇과 밥을 담은 모양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치면서 밥그릇을 들고 먹는 일본의 식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헤이안시대에서 가마쿠라시대로 넘어가면서 밥그릇과 밥을 담은 모양이 변화하였고 오늘날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 일본 식문화의 원형이 여기에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6. 나가기

무사는 헤이안시대 말기가 되어서야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헤이안시대의 문화에서는 주가 될 수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사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미나모토노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바쿠후를 세운 이후라 할 수 있다. 이전 시대인 헤이안시대의 무사는 “후지와라(藤原)씨의 가인(家人=가신 : 논자 주)이 되는 등 귀족계급에 종속”<sup>39)</sup>된 존재였다. 따라서 귀족사회였던 헤이안시대에는 무사의 문화가 주류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사가 문화의 중심이 되어 가는 가마쿠라시대부터 에마키에 무사들의 식사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숟가락과 젓가락의 배치와 관련하여 예시도에 나타난 숟가락과 젓가락의 방향이 식사하는 사람의 전면 중앙에 가로로 놓여 있어 숟가락이 사라진 것만 빼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조쿠리츠요슈』의 예시도에서는 식탁의 중앙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로로 놓여 있어 향후 검토를 요한다.

한편 지금까지 무로마치시대의 자료 가운데 숟가락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연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로마치시대부터 숟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덴나(天和)2년(1682) 5대 쇼군 츠나요시(綱吉) 취임 축하연에 은 숟가락이 사용된 기록과 교호(享保)4년(1719) 8대 쇼군 요시무네(吉宗) 취임 축하 사절 가운데 조선의 제술관이었던 신유한(申維翰)이 저술한 『해유록(海遊錄)』에도 오다와라쵸(小田

39) 구건서(2000) 『현대 日本 문화론』 시사일본어사, p.63.

原城)에서의 접대에 숟가락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sup>40)</sup>, 구계(公家)와 같은 귀족이 아닌 무사의 접대한 점에서 향후 검토를 요한다. 그리고 교호7년(1722) 사키노칸과쿠 쿠죠스케자네(前関白九条輔実)가 호오(法皇)를 맞이할 때의 『미유키고젠즈(御幸御膳図)』에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있다고 한다<sup>41)</sup>.

따라서 상기와 같은 자료를 비롯하여 일본 식문화의 변혁기로 일컬어지는 무로마치시대의 혼젠요리와 카이세키 요리의 예시도와 에도시대의 사료들을 더 수집하여 숟가락의 사용 예를 분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구건서(2000) 『현대 日本 문화론』 시사일본어사, p.63.  
도기흥(2014) 「한국 상차림에서 수저의 배치를 둘러싸고-한일비교문화론을 위한 시론」 『일본어문학』 63호, p.320-322.  
이성우((1988) 《韓國食品文化史》 敎文社, pp.286-287.  
주영하((2011) 《음식인문학》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342.
- 一色八郎(1998) 『箸の文化史』 御茶の水書房, p.47-55.  
石毛直道(1983) 『食事の文明論』 中央公論社, pp.123-126.  
江原絢子·石川尚子·東四柳祥子(2009) 『日本食物史』 吉川弘文館, p.86.  
金泰虎(2007.03) 「日韓の食事作法」 『言語と文化』 第11卷, p.108.  
小松茂美 編(1977) 『年中行事繪巻』 中央公論社, p.28.  
(1978) 『一遍上人繪伝』 中央公論社, p.93.  
(1978) 『華嚴五十五所繪巻』 中央公論社, p.93.  
(1978) 『病草紙』 中央公論社, p.93.  
(1982) 『続日本繪巻大成』 中央公論社, p.152.  
張競(1997) 『中華料理の文化史』 ちくま新書, p.176.  
道元(著) 中村璋八·石川力山·中村信幸訳·(2004) 『典座教訓·赴粥飯法』 講談社, pp.201-202.  
松尾聰·永井和子 校注(2002) 「心にくきもの」 『枕草子』 小学館, p.329.  
宮崎正勝(2009) 『知っておきたい「食」の日本史』 角川文庫, p.40.  
向井由紀子、橋本慶子((2001) 『箸』 法政大学出版局, pp.21-299.  
渡辺実(1973) 『日本食生活史』 吉川弘文館, p.102.

奥井海生堂(<http://www.konbu.jp/culture/konjyaku/syuzai2.shtml>)

40) 전계서 주 5의 p.299.

41) 金泰虎(2007.03) 「日韓の食事作法」 『言語と文化』 第11卷, p.108.

「魏志倭人伝」(<https://ja.wikipedia.org>)  
「群書類従」 364, 448, 449(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  
「古書類苑」(<http://ys.nichibun.ca.jp/kojiruien>)  
正倉院(<http://shosoin.kunaicho.go.jp/>)  
「新校群書類従」 358, 360(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  
『世俗立要集』(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  
禅僧の台所(<http://www.higan.net/shojin/2011/01/post-75.html>)  
『大饗次第』(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  
『厨書類記』(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化資料)  
<http://mahoroba.lib.nara-wu.ac.jp/y04/fram1.html>

논문 투고 일자 : 2016.03.30.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日本のお膳における匙箸の文化学  
-韓・日の比較文化論のための試論-

都基弘

本稿は日本の“箸の文化”という通説を再検討すべく、奈良時代から鎌倉時代までの文献における匙の用例や絵などの資料を中心にその使用例を実証的に考察したものである。

平安時代から鎌倉時代までの古記録や文学作品や料理書などにおいて匙は箸とセットで用いら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貴族だけではなく、僧侶も匙と箸をセットで使っている用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特に、食事の際、匙と箸を使う理由を述べている《赴粥飯法》の説は、中国との比較をも視野に入れて考えるべき有意義なものであった。

そして、平安時代から鎌倉時代までの変化として注目すべきなのは、ご飯の器と盛り方である。今日のご飯の器を手を持って食べる日本の食文化の原型であるという点に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課題としては、日本の食文化の変革期と言われている室町時代の本膳料理と懐石料理の指図をはじめ、江戸時代の資料を収集し、匙の行方と使用例を分析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Cultural Study of Chopsticks in Japanese Preparations  
-An Essay for the Comparative Culture of Korea and Japan-

Do, Kee-Hong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Chinese food culture in Japan, China, and South Korea, compared to the common “Japanese chopstick culture”. for the purpose. For the Heian period from the Kamakura period, literary works, variously aged documents, ritual books, cook books, and the Emaki focus on aspects of spoons used in Japanese table settings, investigated through a diachronic viewpoint.